



“코로나 시대 독서는 가장 적극적인 생존행위”

제주 대한민국 독서대전

4일 개막 비대면 행사로 10월 말까지 각지서 계속

“독서를 상승 GDP 증가 함께 읽기로 위기 대응을” 도서정가제 지속 목소리도



지난 4일 문예회관 앞마당에서 열린 대한민국 독서대전 개막식에서 제주 현기영 작가 등이 참여해 독서문화의 전국 확대를 의미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사진=제주시 제공

“책을 읽는다는 건, 가장 지적이고 적극적인 생존행위이자 삶의 모의비행입니다.” 지난 4일 제주에서 막을 올린 2020 대한민국 독서대전에서 정유정 소설가는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세에 전면 비대면 온라인 행사로 전환한 독서대전에서는 감염병이 불려온 달라진 일상 속에 책의 가치를 새삼 확인하고 이를 지속·확산하기 위한 논의가 모아졌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제주 시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해 올해로 7회째인 이번 독서대전은 ‘지금 우리, 책’이란 주제 아래 개최된 제주를 중심으로 들달을 쌓아간다는 의미에서 따온 5개 소주제별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개막 행사인 들담(談), 도서관·서점·출판사·동네책방과 연계한 만남, 문예회관에서 진행된 제주책 등 전시 프로그램 보답, 포럼 등 학술 행사인 필담, 작가와 독자가 만나는 놀담이다.

6일 ‘지역×책: 지속가능한 연대와 성장’ 포럼에서 ‘미래의 키워드, 책문화 도시’ 기조강연에 나선 모종린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서점, 작가, 독자가 집적된 도시”를 제안하며 “책문화 도시의 핵심은 골목상권의 필수업종으로 지역 작가와 독자가 만나는 사랑방 역할을 하는 독립서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첫날 온라인 생중계된 ‘코로나19시대, 독서의 가치를 다시 묻다’에서는 정유정 소설가가 기조 강연을 맡아 ‘가장 적극적인 생존행위, 독서’를 이야기했다. “책은 장르와 한계와 대상의 제한없이 무한대로 자유롭게 확장시킬 수 있는 유일무이한 매체이자 언택트 시대에 영향을 받지 않는 매체”라는 정 작가는 “세상과 삶과 관계가 이전의 시대와 초격차로

재편돼 버린 뉴노멀의 시대에 문학은 변함없는 삶의 진실을 선출할 것”이라며 ‘독서의 꽃 문학’을 통한 ‘강렬한 모의비행’을 권했다.

이날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은 ‘독서의 경제적 가치’ 주제발표에서 “독서율이 1% 상승하면 GDP가 0.2%인 3조~4조원 증가한다”면서 독서율 상승이 사회 전반의 인적 투자 확대에 이어지고 인적 역량 강화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독서 확대 시 총 여가시간이 늘고 총 노동시간은 감소하지만 노동생산성은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백원근 책과사회연구소 대표는 ‘함께 읽기의 교육적 가치’를 통해 독서율이 1995년 79.0%에서 2019년 52.1%로 하락하는 등 독서하기 어려운 환경의 가속화와 독서습관의 퇴

조에 대한 사회적 대응으로 ‘함께 읽기’를 꺼냈다. 백 대표는 “독서가 개인의 선택 문제로 방치되지 않고 공동체의 기저 문화가 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함께 읽으면 더 오래, 더 깊이, 더 다양하게,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고 했다.

동네책방 운영자들은 5일 ‘날마다 꿈꾸는 동네책방’에서 랜선을 타고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은종복 제주 풀무질 대표는 “오는 11월이면 그나마 있던 부분도서정가제가 없어질 수도 있다”면서 동네책방, 출판사, 책을 읽는 문화가 사는 길로 완전도서정가제의 시행을 주장했다.

개막 행사는 4일 저녁 문예회관 앞마당에서 무관중으로 치렀다. 제주, 서울, 울산, 광주 등 각지 책방을 동시 연결한 영상을 배경으로 제주 현기영 작가의 ‘대지의 뼈’ 낭독, 제주 독서문화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퍼포먼스, ‘오돌토끼’ 설화 주제 공연 등이 진행됐다.

‘팬데믹 시대, 심리방역을 위해 책으로 떠나는 언택트 힐링여행’을 내건 독서대전은 129곳이 참여해 4~6일 주요 행사를 시작으로 10월 31일까지 전국 도서관, 책방 등에서 계속된다. 제주시는 “도서관, 출판사와 동네책방이 친구맺기를 통한 1사 1방, 제주시서점조합 프로그램 등 남은 기간에도 온라인 중계로 독서대전을 즐길 수 있다”고 했다.



다큐멘터리 영화 ‘조수 웅덩이: 바다의 시작’.

‘조수 웅덩이’ 해외 영화제 잇단 주목

제주 바다 조간대 생태 다뤄 9월 일본 유바리영화제 진출 3월엔 미 샌프란시스코 상영

제주 바다 조간대에 살고 있는 생물들의 생태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가 이번에는 일본으로 향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9월 18~22일 일본에서 개최되는 제30회 유바리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 ‘조수 웅덩이: 바다의 시작’ (감독 임형묵)이 공식 초청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일은 2019년 11월 사단법인 제주영화제 주최로 마련된 제15회 제주영화제가 계기가 됐다. 당시 제주영화제에 공식 초청된 일본 홋카이도의 영화 관계자와 제주 영화들 간 교류 활성화 방안 포럼을 통한 제주 영화의 국제무대 진출 논의에 따른 결실이다.

제주도는 “그동안 공연·전시 중심

으로 전개된 한·일 국제문화교류의 스펙트럼을 넓히게 되어 큰 의미가 있다”면서 “제주에서 만들어지는 수준 높은 영화가 국제적으로 진출하는 기반을 다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의 프로덕션 ‘깡이와 바당’에서 제작한 ‘조수 웅덩이...’는 2017년부터 2년에 걸쳐 제주 조간대의 생태를 기록한 작품으로 배우 임채무씨가 내레이션을 맡았다. 임형묵 감독은 인간 생활과 가까운 얇은 바닷속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여러 생물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생명과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전하려 했다.

이 영화는 앞서 지난 3월엔 한국 영화로는 처음으로 제17회 샌프란시스코 국제해양영화제(International Ocean Film Festival) 경쟁작으로 선정돼 현지에서 관객들과 만났다. 2019년 7월에는 부산에서 개최된 국제해양영화제에서 초청 상영됐다.

문화가 쏠리

김양희 시인 첫 시조집 발간

제1회 정음시조문학상 수상자였던 제주출신 김양희 시인이 최근 첫 시조집 ‘년 무작정 온다’ (고요아침)를 냈다. 그의 시집에서 고향의 기억과 달아있는 시편들이 눈에 들어온다. ‘물길하고 돌아온 엄마 손에서 짚맛 난다// 바다를 드나들며 일흔 해 접어진 섬’ (‘메밀꽃’)이라거나 ‘물으로 보내고는 잡지도 날 놓지 못하는// 어머니 먼 메아리가 달 가에 어리다’ (‘달무리’)고 노래하고 있다. 유성호 평론가는 그의 이런 시에 대해 “젊은 날의 사실적 세목을 바탕으로 하면서 그것을 고통과 방황과 그리움의 풍경으로 전이시킨 아름다운 화풍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강순자 시집 ‘그 여자의 시간’

격월간 ‘문학광장’ 신인상을 수상하며 문단에 데뷔했고 현재 ‘돌과바람 문학회’ 회원으로 활동하는 제주 강순자 시인이 첫 시집 ‘그 여자의 시간’ (세미)을 펴냈다. “질심 줄 들어서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을 느낀다는 강 시인은 딸로 태어나 엄마로, 할머니로 살아온 가슴 저미는 지난 날을 시편에 담았다. 그는 시상 속에서 노래하는 풀밭, 꽃바람 타고 춤추는 순이, 햇살 아래 잡초, 부서진 작은 바위돌 (‘딩그린 돌’)로 바뀌는 나날을 그려간다. ‘소중한 생각들이 조용한 눈짓으로 웃음’ (‘그 여자의 시간’) 주는 시 작업을 펼치고 있는 시인의 일상이 전해진다.

김현숙 수필집 ‘... 비나리’

섬을 떠나서야 비로소 섬을 생각했고 ‘나의 뿌리’를 들여다볼 수 있었다는 김현숙 시인이 수필집 ‘그 섬의 비나리’ (에세이스트사)를 묶었다. 어머니가 해녀였고 아버지가 농부였다는 시인은 부모를 통해 제주의 해녀와 농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전하려 했다. 그는 구멍이 숭숭 나있어 얼핏 속이 비어보이지만 웅글차서 쓰임이 좋은 제주 돌에서 해녀와 농부의 얼굴을 본다. 몸으로 섬을 아끼며 살아온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그들이라고 했다. 시인은 ‘내가 돌아갈 곳, 잘 지내다오. 너무 변하지는 말아다오’라는 주문을 다시 한번 외우며 ‘마파람’ 등 30여 편을 소개했다.

강순희 수필집 ‘바람의 집’

제주 강순희 수필가가 수필집 ‘바람의 집’ (수필과비평사)을 펴냈다. 이번 수필집에는 ‘돌이 짠 오줌이라’, ‘떨켜’, ‘미녕치마’, ‘발자국이 말했다’, ‘아주구리’ 등 50편 가까운 글이 실렸다. 지나고 보면 복잡대단 일상이 천국이었고 말하는 작가는 “동전의 양면 같은 희와 비는 마음먹기에 따라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아모르파티’)이라며 “시리지만 새싹 틈을 봄날이 있어 다가올 겨울이 두렵지 않은 나뭇이기를 희망해본다” (‘떨켜’)고 적었다. 2008년 등단한 강 수필가는 앞서 수필집 ‘천천히 그러나 항상 앞으로’, ‘가을 물들다’를 출간했다.

김혜림 제주도립무용단 안무자 재위촉

제주도립무용단의 김혜림 (사진) 예술감독 겸 안무자가 지난 3일자로 재위촉됐다. 제주도립예술단 조례에 따르면 예술감독·안무자와 지휘자는 위촉 기간 만료 3개월 전 재임 시 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도립무용단을 운영하는 제주도문화예술진흥원은 지난 5월 제주도에서 통보한 실적 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난달 18일 분과위원회를 열어 김 안무자에 대한 재위촉을 결정했다. 조례 개정으로 도립무용단 예술감독을 겸하고 있는 김혜림 안무자는 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 총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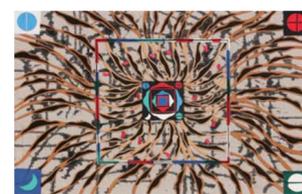
무감독, 정동 예술단 안무감독,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수석안무 경력을 지녔다. 현재 무용역사기록학회 이사, 상명대학교 무용예술학과 특임교수, 최현우리춤원 이사를 맡고 있다. 2018년 9월 도립무용단 상임 안무자로 선임된 이래 제주 무대에서 ‘이여도사나’, ‘찬란’, ‘자청비-오름에 부는 바람’ 등을 안무해 선보였다.



부끄럼의 바람에
백광의 초대展
2020. 08.01 - 09.25
8월 1일 (토) 오후 3시



오름위에서 캔버스에 혼합재료 | 41x24cm | 2020



오름위에서 캔버스에 혼합재료 | 61x45cm | 2019



오름위에 부는 바람 캔버스에 혼합재료 | 27x19x2cm | 2020



오름위에서 캔버스에 혼합재료 | 61x42cm | 2020



오름위에 부는 바람 캔버스에 혼합재료 | 61x43cm | 2019



오름위에 부는 바람 캔버스에 혼합재료 | 45x27cm | 2020

관람시간 안내

평일	Open 11:00 Close 18:00	주말 (토, 일)	Open 11:00 Close 17:00	· 휴관 : 매주 월요일 · 문의 : 064-750-2543
----	---------------------------	-----------	---------------------------	--------------------------------------

Gallery IED

제주시 서사로 154 한라일보 1F

도민과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문을 연 ‘갤러리IED’가 ‘제주, 제주 너머’ 3인 초대전을 성황리에 마치고, 두 번째 전시로 백광의 작가전을 마련하였습니다. 백광의 작가는 제주 토박이로 제주에서 태어나 제주에서 성장했고 현재까지도 고향 제주에서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제주 추상미술 첫 세대의 작가입니다. 오름, 별, 바람 등의 소재를 추상화한 백광의 작가의 그림은 그동안 제주 미술의 정체성을 알려 왔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여러분 깊숙이 잠들어 있는 감성과 영감을 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한라일보는 ‘갤러리IED’를 통하여 제주도민과 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좋은 전시, 보고 싶은 전시를 열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